

해양수산부

항만투자협력과

INTERNATIONAL PORT DEVELOPMENT COOPERATION

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정책 추진방향

INDEX

01 우리의 위치

02 해양수산부 해외항만사업 추진현황

03 주요 정책 추진방향

04 맺음말

01

우리의 위치

◆ 세계 물동량 지속 증가, 개도국 항만시설 부족 · 노후화로 항만 인프라 확충 필요성 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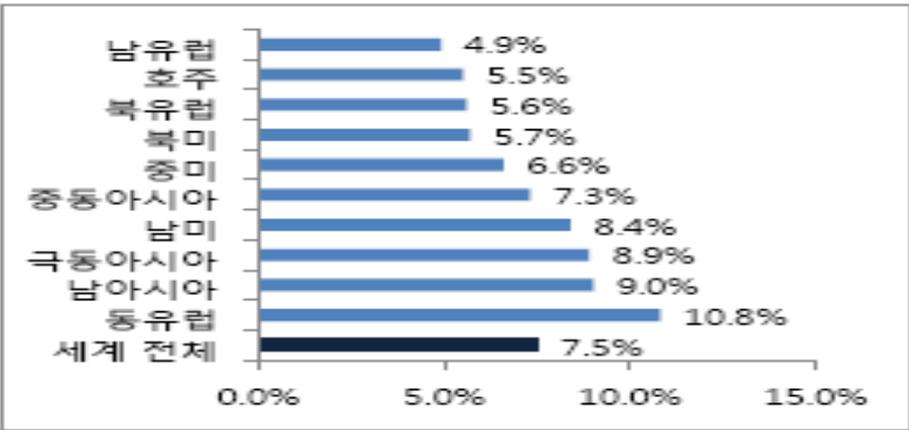
✓ 2030년까지 연평균 \$412억 투자 필요(맥킨지, 2013)

◆ 중국 新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일대일로(一帶一路) 건설 추진

✓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 설립(자본금 \$1000억, 57개국 가입)

◆ (일본) 자국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신흥국 항만, 도로 등 물류시설 집중 투자

✓ AIIB 출범에 대응하여 아시아개발은행(ADB) 아시아 인프라 투자 확대 발표(\$1100억)



<11~17'권' 물동량 증가율(Drewry)>



◆글로벌 터미널 운영사(GTO) 전세계 거점 항만에 대한 공격적 투자

▶ 해외항만 시장 진출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의 신성장동력 마련

❖(DPW) Dubai World(운용규모 \$1100억) 지원으로 주요 개도국 진출 및 신규개발

❖(PSA) 카타르, 사우디 등 중동 시장 진출 확대

❖(허치슨) 유럽, 중동에 이어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시장 진출



<DPW의 주요 진출 지역(아시아, 유럽, 아프리카)

◆국내 재정, 민자사업 지속적 감소→ 성장의 한계 직면

✓ 항만예산(단위:원) : (09)2조→(10)1.7조→(12)1.5조→(14)1.2조→(15)1.3조

◆글로벌 터미널운영사(GTO) 부재

◆선진 금융 시스템 미비

◆주요 국적 해운사 실적 악화→운영 중인 터미널 매각

✓ (한진해운) 스페인 알헤시라스 항만 터미널 운영사(TTI Algeciras) 지분 100%매각

✓ (현대상선) LA컨테이너 터미널(CUT), 시애틀 타코마 터미널(WUT) 지분 49%매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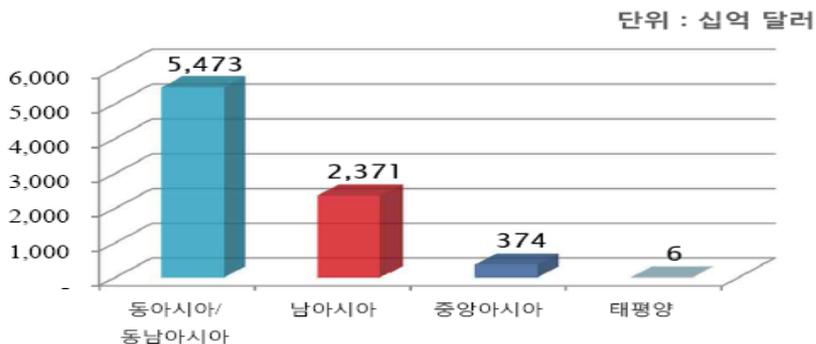
◆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정책 실종

◆과거 실패 경험의 트라우마(붕따우 등)

✓ 붕따우 항만개발을 위해 SPC를 구성했으나, 투자자간 지분갈등, 베트남 정부의 사업권 남발에 따라 사업 중단

- ◆ 세계적인 항만 엔지니어링 · 시공 · 운영기술, 항만 자동화 기술 보유
- ◆ 부산 신항 건설 · 운영, 항만 재개발 경험
- ◆ 개도국 중심의 항만 개발 수요 지속 증가
 - ✓ 세계 100대 도시의 90% 이상이 항만 중심으로 형성
- ◆ 개도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형성
 - ✓ 중국, 일본 진출에 부담 토로

[아태지역 인프라 투자수요 예측(2010~20)]



[분야별/지역별 투자 규모(2010~20)]

단위 : 십억 달러

부문/세부산업	동아시아/동남아시아	남아시아	중앙아시아	태평양	합계
전기	3,182	654	167		4,003
수송	1,594	1,196	105	4	2,899
통신	525	436	79	1	1,041
상하수도	171	85	23	1	280
합계	5,472	2,371	374	6	8,223

자료 : Bhattacharyya B, et al.(2012.12)

해양수산부 해외항만사업 추진현황

- ◆ '08년부터 한국의 항만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항만개발 지원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- ◆ 이를 통한, 항만 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도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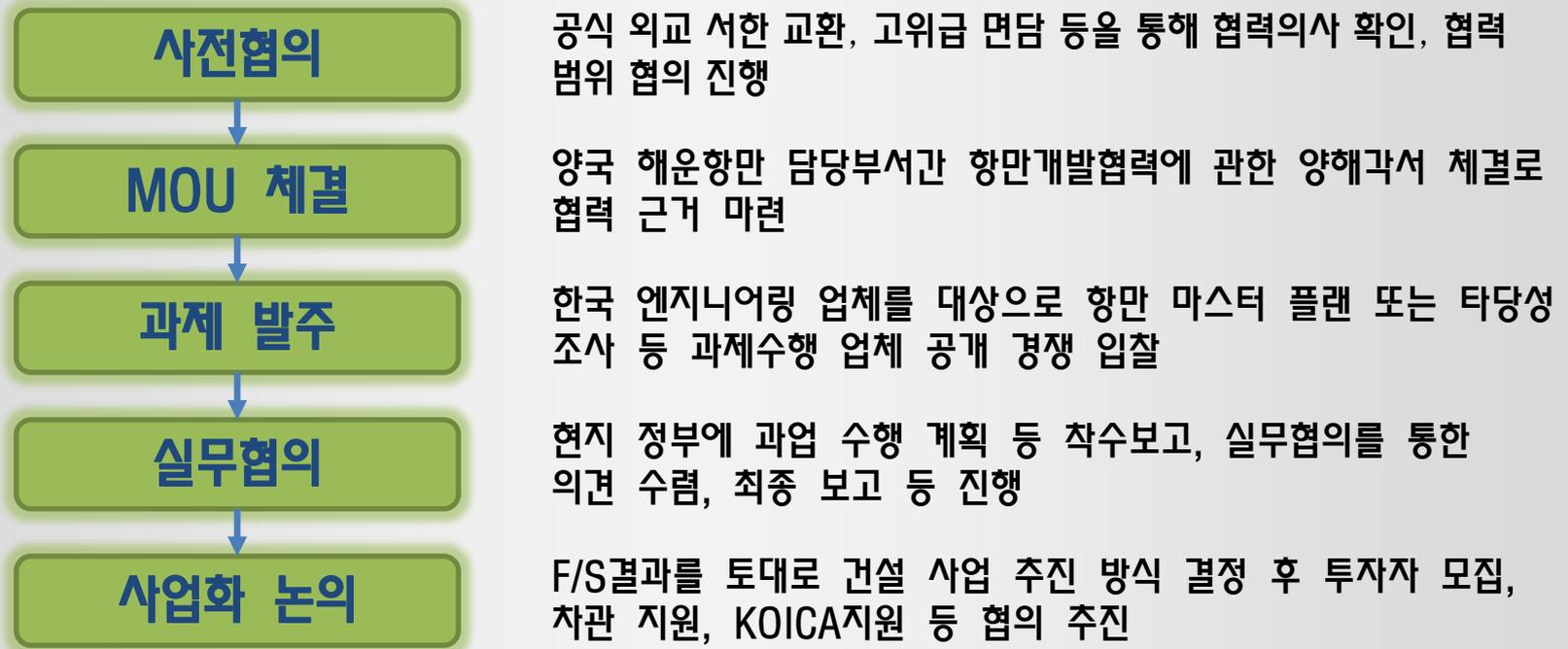
<주요 사업 내용>

해양수산부

용역사
건설·물류기업

1. 항만개발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등 무상지원
2. 비 수익성 시설사업에 대한 EDCF 차관지원
3. 수익성 접안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사업
4. 물류, 항만 분야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제공

개도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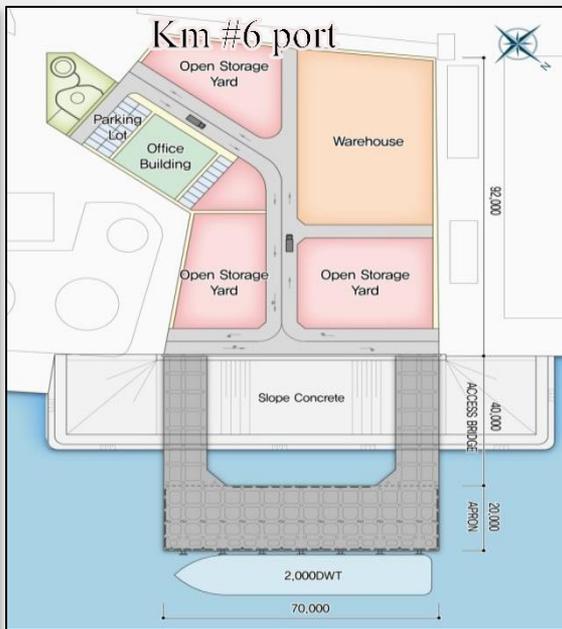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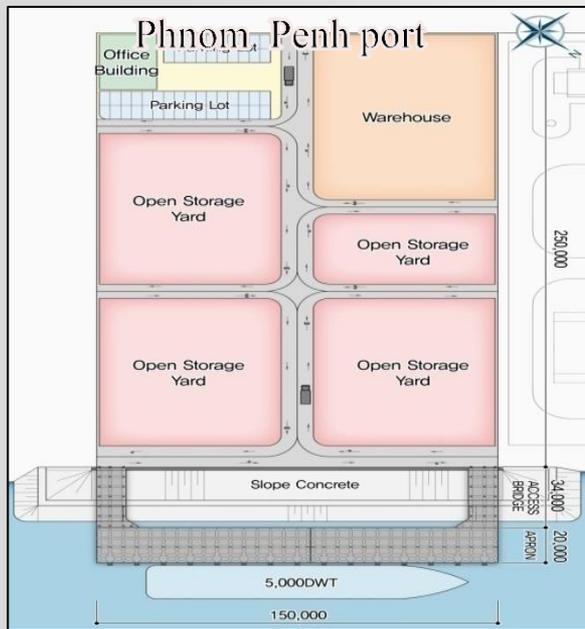


- ◆ '14년까지 13개 사업(M/P수립, F/S사업) 완료
- 15년도 루마니아, 알제리, 콜롬비아, 바누아투 등 사업 진행 중
- 16년도 파키스탄, 이집트, 모로코 등 신규사업 추진 중



◆(사업내용)“캄” 정부와 메콩강 유역 곡물부두 건설 협의 중(9월 초 최종 협의 완료 예정)

◆향후 ICD, 프놈펜 구항 재개발, 프놈펜 신항 3단계 F/S 추진 협의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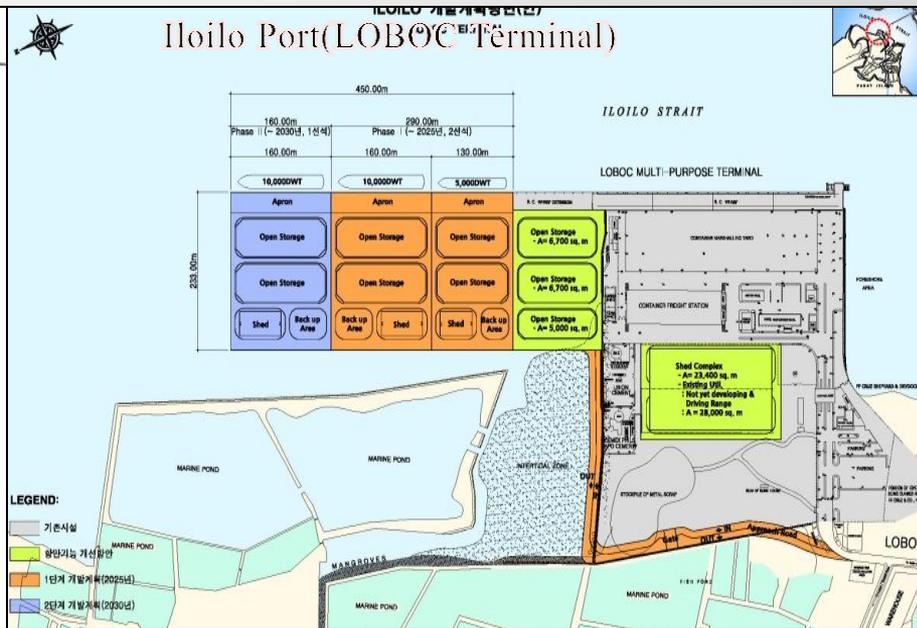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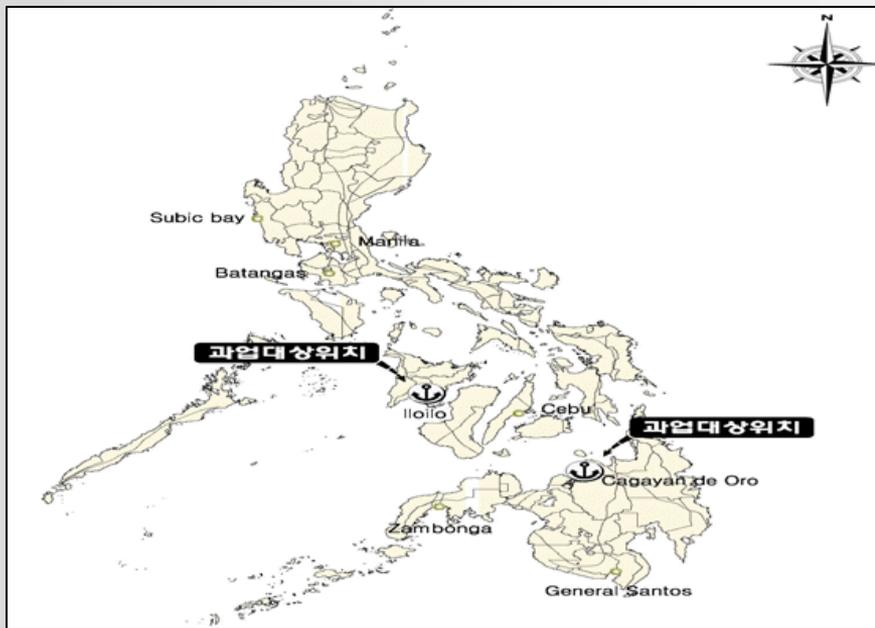


◆(사업내용) 한-ASEAN 협력사업의 후속사업으로 필리핀 항만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

✓대상항만: 카카얀데오로(Cagayan de Oro), 일로일로(Iloilo) 등 2개 항만

◆마닐라 재개발 사업 착수(2015.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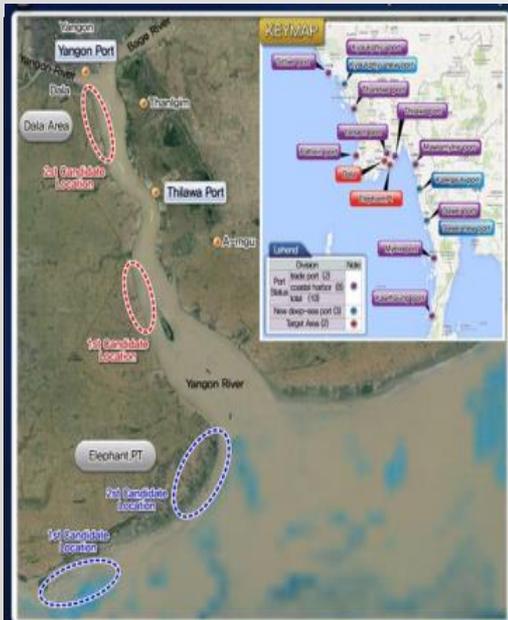
✓필리핀 항만청 협의 완료(ROD 작성)



◆(사업내용)미얀마 항만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

✓대상항만: 달라(dala)지역 신항만, 펠라와항 등

◆ 양곤강 유역부두, 양곤항 재개발, 심수항 등 협의



- ◆(1차F/S) 신항 건설, 베자야(Bejaia) 항만 등 6개 항만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조사
- ◆(2차F/S) 모스타가넴항, 알제항, 안나바항 등 3개 항만에 대한 2차F/S 추진 중



◆(사업내용)러시아 항만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지원

✓사업범위: 러시아 극동지역 22개 항만

◆ 자루비노항 개발 협의(중국 동북3성 물동량 처리)



◆(사업내용) 루마니아 콘스탄자 항만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지원

✓사업범위: 루마니아 콘스탄자 항만(남측 신규터미널, LNG터미널, 북측 마리나 시설, 항만배후단지 등



- ◆(사업내용) UAE 측의 이집트 재건사업 공동진출 제안에 따른 이집트 항만개발 추진
- ✓ 대상사업: 알렉산드리아항 재개발, 수리조선소, 내륙수운 등



◆(사업내용) 콜롬비아 항만개발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지원

✓ 사업범위: 부에나벤투라 항



◆(사업내용) 과테말라 항만개발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지원

✓ 사업범위:계찰,산토토마스,바리오스,참베리코등4개 항만



◆(피지) 어항, 수리조선소, 물류단지, 발전소 등

✓ 피지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

◆(바누아투) 도서간 연결망 구축에 필요한 여객 크루즈부두, 어항 등



● Santo섬 : 어선수리용 수리조선소
→ 국부유출 방지목적



● Pentecost섬 : 여객부두
→ 관광·레저 여객목적



● Malekula섬 : 농산물 수출부두
→ 농산물의 국제무역항 환적목적



● Tanna섬 : Sulphur 신규부두
→ 화산섬으로 관광객 유치목적



해외항만사업 성공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방향

- 1 사업 다변화 추진
- 2 사업화 가능성 제고 및 사업 수주 지원
- 3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 강화
- 4 국내외 금융기관 협력 강화
- 5 제도적 기반 강화

해외 항만시장 진출 확대 및 항만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

(목표) 2025년 협력사업을 통한 사업 누적 수주액 \$50억 달성

◆ 대상국가, 협력 범위, 협력 방법 다변화

- (대상국) 남태평양 도서국, 아프리카, 서남아 국가 중
항만인프라 개발이 시급한 국가로 확대
- (협력범위) 항만관리·운영 교육, 수산업 등 협력 범위 확대
 - ✓알제리와 항만운영 인력 교육 및 한국형 항만연수원 건립 방안 협의
 - ✓남태평양 도서국(파푸아뉴기니 등)과 참치 어업권 확보 등
- (협력방법) 양자간 협력 뿐 아니라 **ADB, IDB** 등과 함께
다자사업(메콩강 내륙수운 개발 등) 발굴
- (PA협업) 해외항만개발 및 운영에 관심이 있는 **PA** 지원
 - ✓F/S 등 기초 투자 지원 등을 위한 정기 협의체 구성 등



◆ 민간 참여 유도

- ▶ 건설, **ENG**, 해외 주재 상사 등 민간의 발굴 및 사업 제안을 상시 접수하고,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인센티브와 연계
- ✓ 신규사업 발굴자에게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업체간 자율경쟁을 통한 사업발굴 역량 제고

◆ 대상국의 경제 발전과 연계된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화 여건 조성

- ✓ 캄보디아(곡물부두), 미얀마(수리조선소), 베트남(메콩강 내륙수운)

◆ 현지기업 참여

- ▶ F/S 단계에서부터 현지 **ENG** 업체 등을 참여시켜 현지정보 수집·분석, 사업화로의 연결 등에 적극 활용



◆ 협력국 항만 관련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지속 추진

▶ 연 평균 3-4개국 대상, BIZ 미팅 주선 등

◆ 주요 개도국에 우리측 항만 전문가 파견 추진

▶ 캄보디아, 과테말라, 필리핀 등과 우리측 전문가 파견 협의하고, 필요시 현지 정부 출신의 해운항만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활용



◆ 해외항만사업은 금융기관이 선호 하는 대표적인 투자개발형 사업(G-TO-G, G-TO-P)

▶ 사업 초기부터 금융기관 참여 유도

◆ 국책은행,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력 강화

✓ 해외항만사업 관련 우리부-산업은행 MOU 체결(15.4)

*우선 금융지원, 별도 F/S 면제 등

✓ 해외항만사업 관련 우리부-수출입은행 MOU 체결예정(15.9)

◆ AIIB, ADB 등 다자개발은행을 활용하여 항만분야 투자 적극 유도

✓ AIIB에 항만 관련 전문인력 파견

✓ 우리부-ADB 정기 세미나 개최



- ◆ 해외항만개발 협력지원센터 발족
 - ▶ 해외사업 전문성 보완 및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전문 지원조직 설립('15.7)
 - ▶ 항만관련 국제단체 및 민간업계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토록 “한국항만협회”에 위탁
 - ▶ 사업 발굴 및 사후 모니터링, 정보수집 및 분석, 정보지 발간, 국제 네트워크 관리 등 지원



04

맺음말

The

END

감사합니다
